

주일 예배

오전 11:00

사외자 : 홍성균 목사

목도	-----	다 같이
찬송	----- 435 장-----	다 같이
신앙고백	----- 주기도문 -----	다 같이
찬송	----- 412 장-----	다 같이
대표기도	-----	박승만권사
봉헌찬송	----- 445 장 -----	조순임권사
성경봉독	--- 행20:28-38절 ---	사 회 자
특송	-----	준비된성도
설교	-----	홍성균목사
그러므로 기억하라		
축도	-----	홍성균목사
교회소식	-----	홍성균목사
식탁교제	-----	사랑하고 섬기며

은샘 소식

♡ 환영합니다. ♡

은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을 한 해 교회 표어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한 해됩니다.
2. 9월 기도 가정 : 한매나 집사 가정
3. 100일 성경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9월14일 (월) ~16일 (수) 까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가 정선에서 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애찬 나눔은 다음주일(2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회 홈페이지를 초기화 하였습니다.
다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 합시다

- 은샘 교회의 비전과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
- 예배하는 숫자가 100명 이상 되게 하소서
- 월100만원 이상 선교할 수 있도록 채워주소서
- 성도들 가정의 축복과 기적을 위해
- 교회 일꾼, 전도대상자를 위해
- 국가와 민족과 북한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혜 선교사님
- *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군경선교회
- * 밀알 복지 재단
- * 천안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 * 사곡 감리 교회 김진섭 목사님, 임월선 사모님
- * 더 길 침례 교회 장 철 목사님, 안보미 사모님

MEMO

나의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보배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여 피하기보다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인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첫째,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과 직분에 감사하며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부름받은 자의 역할은 충성과 사명의 완성을 강조합니다. 셋째는 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마디 더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 얼굴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흔적과 추구한 신념과 존재 됨의 열매가 드러납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얼굴하는 영혼의 모양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랍니다. 즉 바울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은 눈의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얼굴은, 나의 눈은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눈을 향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말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 지금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의 믿음 나의 복음, 내안의 성령과 동행한 삶,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이 되고자 했던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지금 똑바로 보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고 장로님들이여 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이 행전20장26~2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 33장 2~9절까지 말씀처럼 파수꾼의 사명 완수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고 자신있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꺼림이 없이 살아왔음을 강조합니다. 즉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앞에 아름다운 기억의 얼굴을 소유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샘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려다 더 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길과 삶이라면 믿음 안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순간이요 삶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아멘 우리 그렇게 2026년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A 암송 성구 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벧후 1 : 5~7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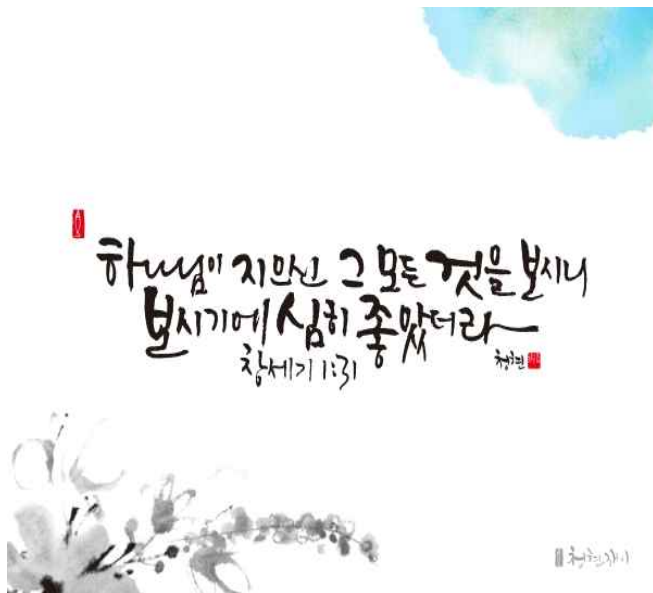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신자 성경공부
수요 예배 오후 7:20	사사기 강해 기도 / 합심 기도 말씀 / 홍 성 균 목사
청년,학생회 (토)오전 11:00	말씀 / 홍 성 균 목사
새벽 기도회 오전 5:30	말씀 / 홍 성 균 목사

예 배 봉 사 위 원

다음주일기도	현 상 부 권사
9월헌금위원	조 순 임 권사
9월안내위원	이은원 권사 , 양병곤 집사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생각해 봅시다



초대의 말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는 부모님을 만나고, 동네 친구도 만나고, 학교에 가면 학교 친구도 만나고, 직장에 가면 직장동료도 만납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가 꼭 만나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십니다. 은샘교회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받으실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새롭게 누리는
은샘 교회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제 26 -38

2026. 9.13

기 독 교
한국침례회

함께함이 축복이 되는 교회
2026년 표어 :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담임목사 홍 성 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암산로 260
☎ 041-337-2298 H.P)010-7238-2298

은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샘을 누리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사랑과 행복 그리고 기쁨이 있는 교회

- 정통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으로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미래 지향적 공동체입니다.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 안내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새벽 예배	오전(월-토) 5:30
주일성경공부(오후)	오후 1: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주 일) 2:00
수 요 일 예배	오후 7:20	중.고등부예배	오전(토) 11:00
		대학.청년예배	오전(토) 11:00

교 회 약 도

